

기고



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매번 말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SOC 투자 확대라 할 수 있다. SOC 투자 확대 및 노후 인프라 개선은 법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만 한다.

정부의 2018년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SOC 예산안은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인 17조원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건설업계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건설업계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방

SOC 예산축소는 잘못된 접근법

안 마련 모색에 골몰했었고, 결국 진통 끝에 SOC 예산을 1조3,000억 증액시킬 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추진계획은 “이제 우리 건설산업도 과거 건설 위주의 전통 산업 이미지를 벗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으로의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며 운영과 관리 중심으로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SOC는 낙후지역의 피와 살

이에 건설업계는 변화의 시기 혁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수리적인 SOC 예산축소는 아주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SOC 사업이 경제발전에도 미쳤던 순기능을 바로보지 못한 처사로 수많은 경제주체인 중소기업 매출은 감소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었다.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부의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토론회의 핵심은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개념의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SOC의 이용 주체는 사람 즉 국민이므로 국민의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SOC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문제는 SOC 예산을 지키고자하는 대응방안도 정부의 막강한 SOC 예산 삭감 정책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죽을 맛이다. 앞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삭감될 처지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정부의 눈치만 보며 통상적인 말만 늘어놓을 뿐이다.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나 지역경제 영향력을 따진다면 지속되어야만 한다. 급격한 감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에 난감을 표한 바 있다. SOC

예산은 지방의 낙후 지역에는 피와 살 같은 것인데, SOC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발상이 심히 걱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인 SOC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며 SOC 예산의 무책임한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결론적으로 정부는 SOC와 복지는 별개로 나눠 볼 사안이 아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 SOC도 복지라는 의견을 굽히며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SOC 사업에 대한 현 글로벌화 시점의 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SOC 투자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을 볼모로 SOC 사업과 복지를 대결구도로 내몰아 가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에 이어>

사설

이전 대통령 법 원칙대로 처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검찰 소환조사 포도라인에 섰다. 100억 원대 뇌물죄를 비롯해 모두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한 출두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오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도라인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찌할지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고 남는다.

이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퇴임 이후 5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무려 20여개에 달한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가 ‘다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는 점을 누누이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뇌물죄다. 이미 검찰은 이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도 뇌물로 판단한 상태이다. 그는 또 국경원 특수활동비 4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만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전 대통령이 밝힌 대로 그가 검찰 소환을 받는 마지막 전직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전 국가적인 불행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이 정한 원칙대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헌법개정안 이전 정치권이 응답하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자문안은 국민주권, 자치분권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지 30년이 넘는 헌법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터라 특위의 자문안에 일단 동의한다.

특위의 헌법개정 자문안 요지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구조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이 눈에 띈다. 대통령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가 워낙 컸던 터라 당연한 이치다.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도 방향이 옳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

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명실공히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확대, 명실공히 지방자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위는 또 자문안에 ‘차별 없는 공정을 실현하라’는 기본권 강화 방안을 담았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도 마련했다.

특위의 자문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들을 수렴·개선토록 권고하는데 맞춰져 있다.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 왔다. 정치권은 오리무중인 개헌관련 일정을 포함,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머리를 맞대야 마땅하다.

Table with 2 columns: 진남매일 (Chonnam Daily)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초월적인 스윙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스윙



이병철의 알짜배기 골프

28 -2 진시황제와 골프경영

진시황의 리더십은 신격화로서 문화전체주의로 스윙한다. 대업을 이루고 성취한 자만심은 시대를 환란시킨다. 하늘의 기세를 찌르고 오랫동안 놀러왔던 육망이 꿈틀거리면서 최고권력자라는 무한 권력이 발산하게 된다. 자신을 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시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집이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한다. 시황제는 제도도 폐지하고 자만심에서 발생한 리더십은 변질되고 실정을 반복한다. 대형공전을 짓고 자신의 무덤 축조, 아방궁 수축, 만리장성 건설,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진다. 진시황의 통치문화전체성은 사상을 통일하기위한 방책이었으나 오로지 사상을 질식시키고 언론을 막고 문화 전적을 없애고 통치계급 내부의 분열을 조

성한 폭정으로 전이된다. 동반자들의 연장으로 발생한 분서갱유는 진나라의 역사와 의술, 농경 등에 관한 책 이외의 모든 책들을 태워버리고 460여명을 구덩이에 넣고 생매장시킨 문화와 사상의 암재 사건이다.

진시황이 천고의 영웅이지만 불로 장생술이나 신선설 같은 허황된 믿음에 빠져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실정으로 후대에 아픔을 준다. 또 지나치게 큰 궁전과 능을 조성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요한 것은 도둑도 되지않으면서 왕조의 수명만 단축시킨 처사였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한 일화에서 보듯 죽음 앞에서는 약한 한 인간이었으며 죽음 또한 비참하게 맞았다.

중국 고대사의 신화적 폭군인 길주와 동일시 된 진시황은 포악무도한 임금의 전형으로 부정적으로 치부되면서도 후대에 사상 최대의 유적을 내려준 군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혁신의 차원을 넘어 상상력의 도약으로 병마용경과 진시황릉을 보여준다. 병마용경은 8,000개에 달하는 실물크기의 테라코타 모형들이 20세기 최대의 고고학 발굴로 꼽힌다. 수천에 달하는 병사들 각각의 얼굴과 체형이 달라서 실제의 인물들을 모델로 인양했으리



라 추측이 된다. 이토록 유명한 병마용경도 진시황릉의 무덤에 붙어있는 수많은 부속품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진시황릉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 사상 최대의 유적이 될 진시황릉이다. 예측해 보던 진시황릉의 높이는 200m의 높이에 달하는 규모로서 2,000년의 세월의 풍화를 겪으며 높이가 76m로 낮아졌지만

여타 불가사이한 유적보다도 상상을 초월한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은 즉위하자마자 여산에 치산 공사를 벌였다. 지하수를 세 번 지난 만큼 땅을 깊이 파고 녹인 구리를 부어 동판을 깔고 그 위에 안치되었다.

사후에 향우가 이곳을 파괴했을 때 30만 명을 동원하여 30일 동안 그 불모들을 날랐다고 하니 그 호화로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제왕이라는 호칭대신 우주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진시황제는 12,000여명을 생육을 시키면서 무덤의 비밀을 지키는데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 중국은 진시황릉의 아래에 숨겨져 있는 지하공전을 일부러 발굴하지 않으며 300년 이내에는 발굴계획이 없다고 한다.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너무나 엄청난 작업이고, 그 엄청난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고도의 문화재 발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굴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중국의 자존심 때문일까?

골프클럽리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독자광고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등 도로사용 금지

언젠가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쩍 인기를 얻고 이미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놀이기구 중의 하나가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운동화 일명 ‘힐리스’, 킥보드와 롤러블레이드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장착하고 비교적 넓고 안전한 운동장 같은 곳에서 타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장소 탓에 인도나 차도 구분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라면 시가지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 즐기고 있어 위험천만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행위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의 장애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보행자 동행방해 지장을 주는 등 안전상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모터를 장착한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요사는 킥보드에 모터를 장착한 스피드보드까지 가세하여 무면허운행을 부추기거나 모터소음을 동반한 시가지 질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특히 롤러블레이드는 많은 동호회가

지 결성되어 있을 만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놀이기구가 되어 이제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안전하고 여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소 배려 등 놀이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 또한 자발적으로 예방대책인 보호용 헬멧, 장갑, 안전장구와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즐기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진정한 스포츠로서의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놀이기구를 타고 달리는 도중 교통사고 및 각종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피를 토하는 경우, 숨쉬기가 힘든 경우, 사지가 마비되거나, 경련을 하는 사고부상자가 생기면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신속하고 침착한 기초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인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위치를 119소방서에 신고를 한다. 각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권동주 무안소방서 건축 민원담당

독자투고

신학기 학교폭력...우리 아이 안전한가

3월이 되면서 학생들은 입학, 개학 등으로 설레는 신학기를 맞았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할지 십여일이 지나가고 있다. 신학기 초인 3~4월이 어느 학생들엔 설레는 시기이지만 어느 학생들엔 힘을 뽐내며 힘겨루기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교폭력에 의해 두려움의 시기일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경찰통계에 따르면 3~4월이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신학기는 다른 때에 비해 학교폭력 상담율도 30% 이상 증가하고, 신고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만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교,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학생이 제 때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만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아 주위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무의식중에 자신이 여러



송길연 화순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딘가 모르게 외부에 신호를 줄 것이다.

우리 경찰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를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머@세상

남편의 후회

사업이 망해 실의에 빠진 남편이 한탄했다.

“이 이전만 원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그의 아내가 조용히 다락에 올라가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왔다. 남편이 그 항아리를 열어 보니 이전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내는 수줍어 하며 말했다.

“당신이 밤에 나를 기쁘게 해줄 때 마다 만 원씩 모아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뻐해야 할 남편은 오히려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 “내가 바랄만 파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일 억은 되었을 텐데.”

아빠와 아들 - 꿈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반짝 손을 들더니 말합니다.

“재벌2세가 꿈입니다. 그런데 아

빠가 노력을 안 해요.” 선생님께서는 기가 막혀 아이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 전해주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도 재벌아빠가 꿈인데, 아이가 노력을 안 해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Living Information Phone) and 긴급전화 (Emergency Phone).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phone numbers.